朴지사 "순천 무공천 반대" 파장

"정당으로서 공천은 당연한 일… 손학규 대표 반박하는 것 아냐"

박준영 전남지사가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의 순천지역 무공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며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 정당의 존립 근거가 있다"면서 "당에서 연합공천하고 순천을 양보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도민과 순천시민이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는 민주당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 당에서 후보를 안내면 도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급적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박 지사가 간담회를 자청한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에서 순천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언뜻 보기엔 손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다.

이 때문인지 박 지사는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옛날처럼 시끄러운 것도 없다"면서 "순천 무공천 문제에 대해 손 대표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입장을 고려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물밑으로도 무공천 문제점에 대해 얘기 많이했으며 당의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선거 문제는 당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심판받은 뒤 연대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대선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지사는 그러나 대선에서 제3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미래를 생각하면 지사직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리비아 전투기 시위대 폭격…'내전 상황'

사망자 600명 넘어
카다피 망명설 일축
외교부, 여행제한 당부

21일(현지 시각) 리비아 벵가지에서 주민들이 장갑차 위에 올라 1969년 카다피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됐던 왕정 시절의 국기를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리비아의 소요 사태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의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내전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군이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무차별 진압으로 사상자 속출** = 이슬람권 사이트인 온이슬람넷은 21일 오후 4시30분 현재 리비아 소요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반전쟁범죄국제연대(ICAWC)'는 며칠째 리비아 곳곳에서 이어진 소요사태로 519명이 사망하고 3980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가 1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과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리폴리 시내에서는 전투기가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의 머리 위에서 저공비행을 하고 있으며 저격수가 도심 곳곳에 배치되는 등 폭력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 **카다피 TV출연, 망명설 부인** = 카다피는 22일 오전 시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영방송에 출연, 자신의 망명설을 부인했다. 카다피는 이날 자신은 여전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있다며 베네수엘라로의 망명설을 부인했다.

그는 "나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트리폴리에 있다"면서 망명설을 보도한 영세방송사를 언급하며 이들의 터무니없는 보도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다.

◇ **시위대 거점 장악…군·정부 인사 이탈** = 시위대가 트리폴리를 제외하고 제2의 도시 벵가지를 비롯해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와 미스라타, 알-자위야 등 8~9개의 도시를 장악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와 상당수 정부 인사들도 카다피에 등을 돌리고 있어 카다피의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알 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리비아 군 장교 일부는 이날 동료 장병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카다피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남은 장 병들은 트리폴리로 진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제사회, 폭력진압 중단 촉구** =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21일 일제히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크게 분노하면서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그의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21일자로 리비아 전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지정했다. /연합뉴스

인구 미달 여수·광주 서구 통합 검토 대상

〈갑·을〉 〈갑·을〉

정개특위 15곳 조정대상

내년 4월11일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을 선거구를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15개가 분할 또는 통·폐합되는 등 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광주 서갑과 서을, 여수 갑과 을 등 8곳이 통합 조정 대상이며, 용인 기흥 등 6곳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 남해·하동의 인구가 10만837명으로, 인구 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하면서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처럼 지역구가 254개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6186명. 이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이 선을 넘으면 분할 대상, 못 미칠 경우는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조영택·민주)과 을(김영진·민주), 여수 갑(김성곤·민주)과 을(주승용·민주)이 통합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서구 갑과 을의 현재 인구는 30만3219명, 여수 갑과 을은 29만3499명으로, 통합대상 인구 상한선 30만9279명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 조만간 이뤄질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 상한선을 맞춰 통합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수는 15만8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 동구(박주선·민주)는 10만4000여명으로, 인구 하한선(10만3093명)을 간신히 상회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용병 리비아 시위 진압" 英신문 오보에 발칵

주말인 지난 19일 낮 주영 한국대사관과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한국 용병들이 리비아 민주화 시위 폭력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글이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실렸기 때문.

담당 기자가 블로그를 통해 긴박한 시위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는 이 글은 "한국과 아프리카 용병들이 벵가지 시위대와의 전투를 위해 밀려들어왔다"는 리비아 여성의 목소리를 옮겨 놓은 것이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오보로 치부할 수 도 있었지만 리비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고 판단한 주영 한국대사관은 공관장 회의차 서울 출장 중인 추규호 대사를 대신해 유의상 공사와 정무과, 이대중 홍보관으로 이어지는 비상망을 가동했다.

그러나 신문사 측은 기사 삭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오후 2시께 "대사관이 한국 용병은 리비아나 아프리카에 현재 없다고 전해왔다"는 반론만을 덧붙였다.

이 홍보관은 반론 한 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다시 국제담당 편집인을 접촉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요구에 잘못된 내용임을 인정한 신문사 측은 인터넷판에 있던 한국 관련 부분과 오디오 파일을 모두 삭제했고 21일자 신문에도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싣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개혁특위 입성경쟁 치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특별위원회 입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국회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양당 원내대표단에 따르면 여야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의 경우, 7명이 배정된 민주당에서는 20여명, 한나라당에서는 30여명이 신청을 한 것을 전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등 현안 외에도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 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참여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구가 상한선을 넘길 정도로 많아 갑·을로 분구됐다가 최근 인구가 줄어 통합 대상에 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할 대상으로 검토되는 지역구에 출마를 원하는 비례대표들도 적지 않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에서도 통합이 검토되다가 막판 기사회생한 여수시의 김성곤·주승용 의원, 익산의 조배숙·이춘석 의원 등이 정개특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어 특위 위원으로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뉴질랜드 6.3 강진 최소 65명 사망…한인 4명 극적 구조

인구 40만명 규모의 뉴질랜드 2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2일 규모 6.3의 강진과 수차례의 여진이 발생,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여행객 4명도 건물내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크라이스터처치에는 교민과 여행객 등 4000여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다른 교민들의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충격으로 시내 곳곳의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고 수도관이 터졌다. 크라이스트처지병원과 도심의 교회와 성당 등 많은 건물이 붕괴됐으며 국제공항도 잠정 폐쇄됐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65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밥 파커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은 현재 150~200명이 아직도 건물 내에서 고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은 호텔의 목조계단 등이 무너지면서 고립됐다가 몇 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연합뉴스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연극.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스포츠 게임 천국, 윙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몽키', 외 다수
(주)쉐이커스 문의 전화 070 · 7581 · 7766 010 · 3549 · 9358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공개합니다.
2011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관상 초급	3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고급	3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초급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사주명리고급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대상
2011년2월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2월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